



# 온갖 식생으로 이뤄진 '화엄숲'



100m 높이의 퇴적층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맑은 계류가 흐르는 은해사 계곡.

풍수하는 사람들은 팔공산을 한반도의 단전(丹田)이라고 한다. 신라가 오악(五岳)을 정할 때, 팔공산을 중앙(中岳)으로 모시고 국운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온다.

팔공산은 최고봉인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1155m)과 서봉(1041m)이 삼존불처럼 나란히 솟아있다. 하늘에서 본 팔공산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활짝 펼친 형태이다.

부인사를 가운데 앉히면 동화사와 파계사는 양쪽 날개에 해당하고, 은해사와 송림사는 양쪽 날개기에 해당한다.

은해사(銀海寺)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팔공산 절골이 시작된다. 늘씬한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절골'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 숲은 은해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산 중언이다.

은해사는 조선 12대 인종(仁宗)의 태실(胎室) 수호 사찰로 지정된 후 숙종 때인 1712년에 왕실의 종친부에 귀속된 적이 있었다. 지금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그때 심어진 것들이다.

숲을 지나다보면 길 오른쪽에 늙은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서로 엉켜 붙어 연리목(連理木)으로 자라고 있다. 연리목이란 글자 그대로 서로 이웃한 다른 나무끼리 몸이 맞붙어 한 나무가 된 것을 말한다. 은해사 사중에서는 남북통일을 지켜주는 상서로운 현상이라고 좋아하고 있다.

숲길을 지나면 계곡을 만난다. 왼쪽으로 10여 미터 높이의 퇴적층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절벽에는 이끼류와 풀들이 드문드문 붙어서 마치 수반 위에 올려놓은 큰 수석(壽石) 같다. 그 수석 아래로 맑은 계류가 흐르고 있지만, 수량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절에서 오래 전에 아래쪽에다 보를 쌓고 계곡물을 가두었다. 그 바람에 아름다운 청석암반들이 물속에 잠겨버렸다. 보를 막으면 오니(沓淵)들이 쌓여 수질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계류가 연못처럼 바뀌자 물총새들만 신이 났다. 물총새 한 쌍이 관광객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느라 정신이 없다.

물총새는 파란 코발트색과 녹색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름철새이다.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부리가 길어서 가분수풀을 하고 있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솜씨는 신기에 가깝다.

물기를 좋아하는 노랑할미새 몇 마리로 여기저기 포르르 날아다닌다. 주변 숲과 계곡에는 직박구리, 딱다구리, 휘파람새, 딱새, 박새류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대숲을 병풍으로 두른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심검당과 설선당이 자리해 있다. 지장전은 육신이 들어간 전각이다.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은 정면과

## 계곡에 쌓은 쌓 영향으로 석암반 잠기고 수질 떨어져 자연성 간직한 운부암, 성철·향곡 스님 수행하던 곳

측면의 길이의 비에서 나온다. 즉 정면 길이는, 측면의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sqrt{2}$ 에 해당한다. 지장전의 비율은 1:1에 가깝다. 사람으로 치면 비만(肥滿)에 걸린 셈이다.

종무소 앞에는 우람한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향나무 역시 은해사가 종전부 사찰이었을 당시에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 은해사 주변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노장나무다.

서운암으로 가는 숲길은 포장길이다. 길옆과 초지와 묵밭에는 개망초, 거북꼬리, 금낭화, 기린초, 꼭두서니, 담쟁이, 박주가리 등이 눈에 띈다. 습한 곳에는 고마리, 노란물봉선화, 석죽풀, 달뿌리풀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랑물봉선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의 습한 지역에 야생하는 물봉선화 가운데 노란색을 띤 종류이다. 개체수에 있어서는 붉은물봉선보다 뜸하다. 꽃은 줄기와 잎의 저드랑이에 고깔 모양으로 매달려 피는 통꽃이다.

석죽풀은 30cm 가량의 키에 4각으로 모가 난 줄기에 잎과 꽃이 사방으로 둘러 핀다. 꽃은 여름에 피며, 연자주색에 붉은 점들이 나있다. 꽃잎 끝이 입술을 닮았다.

등산로를 따라 참나리들이 보인다. 자생한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심어놓은 것인데도 주위의 다른 야생화들과 능청스럽도록 잘 어울려서 절로 난 것처럼 보인다. 꽃은 거의 떨어지고 염소퐁 같은 주아(珠芽)



은해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향나무(오른쪽).



은해사 계곡(보).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사슴벌레.

### 오랫동안 보이차를 드신분은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의 차를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 茶인들이 즐겨 찾는

##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 인급, 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 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 청차, 말차  
과묵 다반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나요? 차에 가까이 계시나요?

그럼 매달, 월간『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